

身柱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

金薰 · 成樂箕*

I. 緒論

經絡이란 人體內的 經脈과 絡脈의 總稱으로 直行하는 幹線을 經脈이라 하고 經脈에서 分出되어 身體各部分을 網絡한 支脈을 絡脈이라 한다. 經絡은 全身의 氣血을 運行하고, 臟腑肢節을 連繫하며, 上下內外를 疏通시키고, 體內各部分을 調節하는 通路이다. 經絡系統의 連繫를 通하여 人體는 하나의 有機的全體가 된다. 現代醫學의 觀點에서 經絡을 보면, 神經, 血管, 內分泌 등의 構造와 그 一部機能을 包括하게 된다. 그러나 神經 血管 등의 構造와 機能만으로는 經絡學說의 內容全部를 완전히 解釋할 수 없으며, 더 探索研究 되어야 한다.¹⁾

督脈은 脈長이 四尺五寸에 이르며 起於少腹以下骨中央하여 會陰部에서 出하여 背部의 脊柱正中線을 따라 上向해서 後頭部를 거쳐 頭項部를 넘어 顔面部의 上齒齦의 正中에 이른다.^{25,31)} 循行過程에서 脊髓 腦 및 諸陽經과 서로 連繫될 뿐 아니라^{1,25)} 腎臟에 絡屬한다.

身柱穴은 督脈의 12번째의 經穴로 督脈氣所發하는 곳이다. 身柱穴은 建築物의 여러 構造에 比喩하여 지은 穴名中에 天柱穴과 함께 기둥 또는 대들보를 뜻하는 "柱"字를 사용한 經穴로써 그 穴名에서 身柱穴의 重要性을 알 수 있다.^{25,30)} 身柱穴에 대한 最初의 記錄은 《黃帝內經》에 나타나 있는데 《素問刺熱篇》에 "熱病氣穴, 三椎下間主胸熱"이라 하여 穴位와 主治證에 대한 言及만 있고 穴名은 없다.^{3,4)} 그 후 《鍼灸甲乙經》에서 "身柱, 在第三椎節下間, 督脈氣所發, 俯而取之, 刺入

五分, 留五呼, 灸五壯."이라 하여 穴名, 穴位, 取穴法, 刺法, 留鍼時間, 灸法을 밝히고 있다.⁵⁾

《鍼灸甲乙經》以後의 文獻들에서 그 內容이 若干씩 相異한 점이 있었다. 이에 著者는 臨床에서 多用하고 있는 鍼灸治療穴중의 하나인 身柱穴에 대하여 穴位, 取穴, 刺鍼法, 灸法, 穴性 및 主治症에 대하여 《黃帝內經》以來 歷代의 文獻을 考察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資料 및 調查方法

1) 資料

-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 (2)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 (3) 王國瑞: 《扁鵲神應鍼灸玉龍經》
- (4) 楊繼洲: 《鍼灸大成》
- (5) 高武: 《針灸聚英》
- (6) 吳謙 外: 《醫宗金鑑》
- (7) 吳崑: 《鍼灸六集》
- (8) 張介賓: 《類經圖翼》
- (9) 李梴: 《編註醫學入門》
- (10) 許浚: 《東醫寶鑑》
- (11)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 (12) 程寶書: 《鍼灸大辭典》
- (13)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 (14) 張縉: 《鍼灸穴名解》
- (15) 上海中醫學院: 《鍼灸學辭典》
- (16) 陳瘦燕 外: 《鍼灸腧穴圖譜》
- (17) 崔容泰 外: 《鍼灸經穴圖鑑》
- (18) 李文瑞 外: 《實用鍼灸學》
- (19) 楊甲三 外: 《鍼灸學》
- (20) 李世弘: 《中國鍼灸大辭典》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 (21)李經緯《鍼灸集成》
- (22)全國韓醫科大學鍼灸經穴學教室《鍼灸學(上)》
- (23)覃保霖 外《中華鮮花葉透穴療法》
- (24)劉少林《中國民間刺血術》
- (25)余仲權 外《經穴辨證運用學》
- (26)鍼灸研究中心《臨床內外科鍼灸學》
- (27)安榮基《經穴學叢書》
- (28)成樂箕《現代鍼灸學》
- (29)焦順發《中國鍼灸學求真》
- (30)山東中醫學院《鍼灸穴位解剖圖譜》

2)方法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文獻을 對象으로 身柱穴에 대한 意味, 穴位, 鍼刺法, 灸法, 穴性, 主治症에 관하여 考察하였다.

2. 調查內容

1) 精校黃帝內經素問³⁾

熱病氣穴, 三椎下間主胸熱, 四椎下間主膈中熱, 五椎下間主肝熱, 六椎下間主脾熱, 七椎下間主腎熱.

2) 鍼灸甲乙經校釋⁵⁾

《原文》神主, 在第三椎節下間, 督脈氣所發. 俯而取之. 刺入五分, 留五呼, 灸五壯.

《按語》身柱在第三胸椎棘突下, 俯而取之. 向上斜刺入八分至一寸.

3) 扁鵲神應鍼灸玉龍經⁷⁾

在背第二椎骨節, 鍼三分, 灸七壯, 瀉之.

4) 鍼灸大成⁶⁾

三椎下, 俯而取之. 《銅人》鍼五分, 灸七七壯, 止百壯. 《明堂》灸五壯. 《下經》灸三壯.

主腰痛, 癲病狂走, 癩癧. 怒欲殺人, 身熱, 妄言見鬼, 小兒驚癇.

《難經》云, 治洪長伏三脈, 風癇發狂, 惡人與火, 灸三椎, 九椎.

在三椎下, 俯而取之, 灸二七壯《神應經》.

5) 鍼灸聚英⁸⁾

三椎節骨下間, 俛取之. 銅人鍼五分灸七七壯止百壯, 明堂灸五壯, 下經三壯. 主腰痛癲病狂走癩癧, 怒慾殺人, 身熱妄言見鬼, 小兒驚癇. 難知云治洪長伏三脈風癇驚癇發狂惡人與火灸三椎九椎.

6) 醫宗金鑑⁹⁾

三椎下身柱穴也(p699).

身柱主治羊癇風咳嗽痰喘腰背疼

身柱穴主治風癇發狂咳嗽痰喘腰背疼痛等證 鍼五分灸七七壯.(p722)

7) 鍼方六集¹⁰⁾

身柱一穴: 在第三椎下間, 俯取之. 《鍼經》: 刺入五分, 留五呼; 灸三壯. 一方: 灸七七壯, 止百壯. 身柱一穴; 主腰痛, 癲癇癩癧, 妄見妄言, 咳嗽哮喘, 小兒驚癇.

8) 類經圖翼¹¹⁾

在三椎節下間, 俛而取之.

刺五分, 留五呼, 灸五壯, 一曰灸七七壯.

主治腰痛, 癲癇狂走怒欲殺人, 癩癧身熱, 妄言見鬼, 小兒驚癇.

神農經云, 治咳嗽, 可灸十四壯.

玉龍賦云, 能蠲嗽, 可灸十四壯

百證賦云, 兼本神穴, 治癲疾妙.

乾坤生意云, 同陶道肺俞膏肓, 治虛損五勞七傷緊要法.

一傳治四時傷寒.

9) 編註醫學入門¹²⁾

身柱: 三節, 鍼五分, 灸五壯, 主癲疾癩癧怒慾殺人胸熱口乾煩渴喘息, 頭痛吐而不出.

10) 東醫寶鑑¹³⁾

身柱一穴 -- 在第三節下間俛而取之鍼入五分可灸五壯(銅人)

11) 中國醫學大辭典¹⁴⁾

屬督脈經。在三椎下，俛而取之，主顛病狂走，癩癧亂欲殺人，身熱妄言，見鬼，腰脊痛，小兒驚癇，銅人，鍼五分，灸七七壯，止百壯，明堂，灸五壯，下經，灸三壯，難經云，治洪長伏三脈，風癇發狂，惡人與火，灸三椎九椎。

12) 鍼灸大辭典¹⁵⁾

身柱

經穴名。出鍼灸甲乙經。屬督脈。別名塵氣，和利氣，智利毛，知利介，柱，即支柱，本穴位於脊柱之上，與兩肩相平，為人身肩胛部負重的支撐之柱。身柱者，為身之主骨也……因此為負身之立柱，故名身柱(會元鍼灸學)

第三胸椎棘突下是穴。有腰背筋膜，棘上韌帶及棘間韌帶；第三肋間動脈背側支，棘突間皮下靜脈叢，第三肋間神經後支之內側支。主治咳嗽，氣喘，癩癇，腰脊強痛。向上斜刺五分至一寸。灸三至五壯。《醫宗金鑑》：主治風癇發狂，咳嗽痰喘，腰背疼痛等證

13) 鍼灸學¹⁶⁾

【位置】第三胸椎棘突下。分布第三胸神經後支內側支。

【刺法】沿棘突間刺入1寸許，可灸。

【主治】咳嗽，氣喘；胸中熱，疔瘡，癩狂。

14) 鍼灸穴名解¹⁷⁾

本穴承神道之氣，循督上升，正而且直，故名身柱。觀本穴所治，因腦力不足而眩暈，因中氣不足而喘息，因心神衰弱而癩癇，因大氣下陷而脫肛，均屬正氣先虛，則督經之氣升舉無力，以致產生腰脊肩背諸病。宜取本穴以興奮之，使督氣得充，正立直行，功同砥柱，諸症可癒矣。

其能治風者，何也？本穴旁傍風門，與人體內熱生風有關。故所治多屬搖擺眩暈火極而生之風。若以治外侵之風，及濕滯作痛之疾，非其所宜。猶抵禦外侮，良相不如良將也。

15) 鍼灸學辭典¹⁸⁾

【位置】在背部中線，第三，四胸椎棘突之間，《甲乙》：第三椎節下間。

【解剖】頸腰背筋膜炎，棘上韌帶，棘間韌帶，有第三肋間動脈後支，分布有第三胸神經後支之內側支。深部為脊髓。

【主治】咳嗽，氣喘，身熱，驚厥，癩癇，脊背強痛，疔瘡：以及支氣管炎，支氣管哮喘，肺炎，肺結核，百日咳，精神分裂症等。

【刺灸】深0.5~1寸，艾炷灸3~5壯；或溫灸5~10分鐘

16) 鍼灸腧穴圖譜¹⁹⁾

【部位】四胸椎棘突間，腰背筋膜炎，棘上及棘間韌帶處。即當第三椎節下間

【取穴】按取第三椎節之下，即第三，四胸椎棘突間陷中取之

【主治】癩疾狂走，身熱癩癧，妄言見鬼，小兒驚癇，虛勞咳嗽，氣喘，疲乏

【鍼灸法】鍼3~5分，灸5~10壯

17) 鍼灸經穴圖鑑²⁰⁾

【主治症】氣管支炎，咳嗽，發熱，泄瀉。

18) 實用鍼灸學²¹⁾

【別名】知利介，知利氣，智利毛，塵氣。

【部位】第三胸椎棘突下凹陷中。

【取穴】正坐低頭，脊背正中線上，心舒1穴下隔1椎骨，即第三胸椎棘突下凹陷處為是穴。

【主治】腦及脊髓疾患，癩，狂，癇，小兒搐搦，咳嗽，腰脊強痛，癩病。

【療法】斜向上刺1寸，酸深脹向兩肩下放散，灸3~5壯。

19) 鍼灸學²²⁾

【出處】甲乙經；在第三椎節下間。

【穴名釋義】柱，指撐柱。穴在第三椎節下間，當兩肩胛的中央，因喻穴處猶如肩胛荷重的撐柱，故而得名。

《腧穴學》：支撐為柱，意指基重要，穴當第三胸椎下，在兩肺俞之間，意指脊椎為一身之

柱，又指肺主一身之氣，其作用重要，故名。

【取法】在第三胸椎棘突下陷中取穴。

【刺灸法】直刺0.5~0.8寸；可灸。

【功能】寧神鎮痙。

【主治】癰癧，咳嗽痰喘，癩風，疔瘡，脊背強痛。

20) 中國鍼灸大辭典²³⁾

【別名】和利氣，知利介，知利氣，智利毛，塵氣。

【經絡】督脈經

【位置】在第三推節下間

【解剖】在第三，第四胸椎棘突之間，皮下為棘突上韌帶，當斜方肌起始部，有頸橫動脈降枝和肋間動脈後枝，由胸神經的後枝司感覺

【主治】癲癩，癰癧，腰脊強痛，虛勞咳嗽，衄血，身熱妄言，中風不能言語，胸中熱，疔瘡

【應用】1. 神農經 -- 治咳嗽。

2. 玉龍賦 -- 能嗽除臂痛。

3. 百證賦 -- 兼本神穴，治癲疾妙。

4. 乾坤生意 -- 同陶道，肺俞，膏肓，治虛損五勞七傷

【取穴】按取第三椎節下，即第三，第四胸椎棘突之間是穴，正坐曲背取之。

【鍼灸】斜刺，從背側面略向上刺入，針三至五分，灸三至十壯，溫灸二十至五十分鐘（類經圖翼引神農經云治咳嗽可灸十四壯）。

21) 鍼灸集成²⁴⁾

在三椎節下間，俛而取之，鍼五分留五呼灸五壯，一曰灸七七壯

主治腰脊痛癲癩狂走怒欲殺人癰癧身熱妄言見鬼小兒驚癇

《神農經》治欬嗽可灸十四壯

《玉龍賦》能嗽除臂痛

《百證賦》兼本神穴治癲疾妙

同陶道肺俞膏肓治虛損五勞七傷緊要法一傳治四時傷寒

22) 鍼灸學(上)²⁵⁾

【異名】尖氣，塵氣，智利毛，和利氣。

【部位】第三椎節下間 俯而取之。

【取穴】第3胸椎棘突下，第3-4胸椎間。

【鍼法】直刺3~5分，留5呼。

斜刺5分~1寸，鍼尖을 약간 上方으로 向해 刺入한다。

【鍼響】酸脹感 或은 沈重感이 背下方으로 擴散된다。

【灸法】肉灸3~7壯，溫灸20~50分

【穴性】理氣降逆 祛邪退熱 清心寧志 補肺清營 止咳喘和鎮靜。

【主治】氣管支炎，咳嗽，氣喘，肺結核，精神病，癲癩，神經衰弱，腰背強痛，發熱，癩癧，小兒驚厥，胸背痛。

23) 中華鮮花葉透穴療法²⁶⁾

第三胸椎棘突下節間

主治腰背強急(制)，胸背脹痛(通)，咳嗽喘息(運)，癲狂痲疾(攝)，癆症虛損(運)，脊軟無力(運)，軀肢癱瘓(通)

24) 中國民間刺血術²⁷⁾

【主治】腰脊痛，癲病狂走，身熱，妄言見鬼，小兒驚癇。

【治則】清熱寧神

【治法】用梅花鍼刺，火罐撥吸1分鐘出微血。

25) 經穴辨證運用學²⁸⁾

【別名】百勞，《圖翼》

【部位】在第三椎節下間，《甲乙經》

【取法】在第三胸椎棘突下陷中，俯伏取穴。

【主治】瘡疾，熱病，頭痛，氣喘，癲癩，驚風，癲狂，疔瘡，腰痛，胸背痛，癰癧

【治法】鍼 0.5~1.0寸，實證可刺血拔罐。

26) 臨床內外科鍼灸學²⁹⁾

【位置】在第三椎節下間

【取穴】於第三胸椎下陷中取之

【鍼灸法】鍼三~五分，灸三~五壯。

【主治】癩癧, 癧癧, 腰脊强痛, 虚勞咳喘, 衄血, 身熱妄言.

27) 經穴學叢書³⁰⁾

【位置】第3, 第4 胸椎棘突起의 사이.

【解剖】棘上靱帶와 棘間靱帶가 있다. 第3 肋間動. 靜脈의 背枝와 棘間皮下의 靜脈叢이 있으며, 第3胸神經後枝의 內側皮枝가 分布되어 있다.

【取穴】坐位로 取穴한다. 頸을 앞으로 구부릴 때 最上位에 돌출한 棘突起가 第7頸椎棘突起이며 그 直下가 第1胸椎棘突起이다. 이하 순서대로 棘突起를 깊어 내려가서 第3, 第4 胸椎棘突起間의 中央에서 取穴한다.

【主治】氣管支炎, 肺炎, 哮喘, 肺結核, 胸背痛, 精神病, 히스테리등.

【文獻】虚勞喘咳, 胸熱, 中風으로 인한 不語, 癩癧, 癧癧, 腰脊間痛 등.

【治法】針法 : 斜刺로 鍼尖을 약간 上方으로 向해 0.7 - 1 寸 刺入한다.

感應 : 酸脹感 혹은 沈重感이 背下方으로 擴散된다.

灸法 : 灸 3 - 5 壯, 溫灸 10 -20 分間

【配穴】百日咳에는 大椎, 風門을, 佝僂病에는 關元, 足三里(灸)를, 慢性氣管支炎에는 大椎, 肺俞를 각각 配用한다.

28) 現代鍼灸學³¹⁾

身柱穴

【部位】背部, 第3.4胸椎 棘突起 사이에 있다.

【取穴法】肩胛棘線과 後正中線이 마주치는 交叉點에서 取穴한다.

【解剖學的 所見】

筋肉 : 棘間靱帶, 棘間筋, 僧帽筋, 菱形筋.

血管 : 肋間動 靜脈, 頸橫動 靜脈.

神經 : 胸神經 後支

【適應證】神經衰弱, 癩癧, 精神疾患, 脊髓炎, 腦溢血, 顔面 神經痲痺, 氣管支炎, 泄瀉,

喘息, 腰脊强痛, 小兒驚風등의 證에 效가 있다.

29) 中國鍼灸學求真³²⁾

【位置】在第三椎節下間.(甲乙經)

【取穴】在第2胸椎棘突下.

【鍼刺】鍼刺1~1.5厘米深

【主治】支氣管炎, 肺炎, 肺結核, 哮喘, 心動過速, 癩癧, 背痛, 脊髓炎等.

30) 鍼灸穴位解剖圖譜³³⁾

【定位】第3胸椎與第4胸椎棘突之間.

【操作】直刺, 微斜向上深 0.5 - 1 寸.

【解剖】針經過의 層次結構同大椎穴.

淺層布有第3胸神經後支의 皮支及其伴行의 動脈, 靜脈 : 深層有棘突間의 椎後靜脈叢和第三胸神經後支의 皮支.

【主治】咳嗽, 氣喘, 癩癧, 腰背項痛.

III. 考察

身柱穴은 督脈氣가 所發⁵⁾하는 곳으로 督脈經의 12번째의 穴이다.

身柱의 “身”은 全身을 指稱하고, “柱”는 梁柱, 柱幹의 意味이다^{15, 22)}.

이 穴은 위로는 顛頂과 接하고 아래로는 背腰와 通하며 兩傍으로는 兩膊과 接하여 一身의 柱幹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背脊의 三椎下에 位置하여 그 兩傍에는 肺俞穴이 있어 全身의 氣와 關聯이 있고, 前對側의 兩乳間에는 臈中穴이 있어서 宗氣가 所出하며, 그 上下로 腦와 脊髓에 貫通하여 一身의 柱骨이 되므로 身柱라 命名한 것이다.¹⁸⁾

身柱의 異名은 《鍼灸學(上)》²⁵⁾에서 尖氣, 塵氣, 智利毛, 和利氣라 하며, 《實用鍼灸學》等^{15, 23)}에서는 知利介, 知利氣, 智利毛, 塵氣라 하였고, 《經穴辨證運用學》²⁸⁾에서는 百勞라 하였다. 그러나, 古代의 鍼灸學文獻에는 異名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身柱穴의 穴位는 《黃帝內經素問》^{3, 4)}에서

는 “三椎下間”이라 하였고, 《鍼灸甲乙經》等^{5.13.18.23)}에서는 “身柱在第三椎節下間”이라 하였으며, 《鍼灸大成》⁶⁾에서는 “三椎下”라 하였고, 《扁鵲神應鍼灸玉龍經》⁷⁾에서는 “在背第二椎骨節”이라 하였고, 《中國鍼灸學求真》³²⁾에서는 “在第二胸椎棘突下”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身柱穴의 穴位에 對해서는 第二胸椎下와 第三胸椎下로 두가지 說로 나눌 수 있으나 《黃帝內經素問》以來로 大部分의 書籍이 第三胸椎下로 記載하고 있으며 臨床에서도 第三胸椎下를 使用하므로 第三胸椎下가 妥當하다 할 수 있다.

身柱穴의 取穴에 對해서는 《鍼灸甲乙經》等^{5.6.19.28)}에서는 “俯而取之”라 하였고 《類經圖翼》等^{8.13.14)}에서는 “俛而取之”라 하여 大體로 一致함을 알 수 있다.

身柱穴의 刺鍼深度는 《鍼灸甲乙經》^{5.10.11)}等에서는 “刺入五分”이라 하였고, 《扁鵲神應鍼灸玉龍經》等^{7.8.9.12.13.14.24)}에서는 “鍼五分”이라 하였고, 《鍼灸學(上)》等^{18.25)}에서는 直刺時에는 三~五分이라 하고, 斜刺時에는 五分~一寸이라 하여 直刺時와 斜刺時의 深度를 區別하였으며, 《中國針灸學大辭典》等^{15.19.23.29)}에서는 “三至五分”이라 하였으며, 《鍼灸穴位解剖圖譜》等^{28.33)}에서는 五分~一寸이라 하였으며, 《中國鍼灸學求真》³²⁾에서는 “1~1.5厘米深”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보면 身柱穴의 鍼刺深度는 大體로 直刺時에는 三~五分, 斜刺時에는 五分~一寸이 適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身柱穴의 留鍼時間은 《鍼灸甲乙經》等^{5.10.11.21.24)}에서는 留五呼라 하여 歷代文獻의 記載가 一致하였다.

身柱穴의 灸法에 對해서는 《鍼灸甲乙經》等^{5.11.12.13.24)}에서는 “灸五壯”이라 하였으며, 《鍼灸大成》等^{6.8.10.18)}에서 “灸七七壯, 至百壯”이라 하였으며 《中國鍼灸學大辭典》²³⁾에서는 “灸三至十壯”이라 하였으며, 《鍼灸學(上)》²⁵⁾에서는 “三~七壯”이라 하였으며, 《鍼灸學辭典》等^{18.29.30)}에서는 三~五壯이라

하였으며, 《鍼灸腧穴圖譜》¹⁹⁾에서는 五~十壯이라 하였으며, 禁灸에 對하여 記載된 書籍은 없었다.

身柱穴의 穴性은 《鍼灸學(上)》²⁵⁾에서는 “理氣降逆, 祛邪退熱, 清心寧志, 補肺清營, 止咳喘和鎮靜”이라 하였으며, 《鍼灸學》²²⁾에서는 “宣肺清熱, 寧神鎮痙”이라 하였으며, 《中國民間刺血術》²⁷⁾에서는 “清熱寧神”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身柱穴의 穴性이 “理氣降逆, 祛邪退熱, 清心寧志, 補肺清營, 止咳平喘, 鎮靜鎮痙”이라 한 것으로 보아 呼吸器 疾患과 神經精神科 疾患에 應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熱性疾患과 痙攣性疾患에도 應用할 수 있으리라 思料 된다.

身柱穴의 主治症을 分類하여 보면 呼吸器 疾患과 神經精神科 疾患 및 小兒科 疾患에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運動器 疾患, 循環期 疾患, 熱性 疾患, 腦와 脊髓의 疾患, 虛勞性 疾患, 外科 疾患等에 使用됨을 알 수 있었다. 特히 呼吸器 疾患中에서는 氣管支炎, 肺結核, 肺炎, 百日咳, 喘息, 咳嗽, 氣喘, 哮喘, 咳嗽痰喘, 虛勞咳嗽등에 多用되고 있었으며, 神經精神科 疾患中에서는 精神分裂症, 癲癇, 精神病, 히스테리, 怒欲殺人, 妄言見鬼, 神經衰弱, 癲疾狂走, 風癇發狂, 驚厥등에 多用되고 있었으며, 小兒科 疾患中에서는 小兒驚風, 癰瘖, 小兒驚癇, 小兒搐搦, 小兒驚厥등에 多用되고 있었으며, 運動器 疾患中에서는 腰脊強痛, 胸背痛, 腰背項痛, 腰脊痛等에 多用하고 있었으며, 循環期 疾患中에서는 中風不能言語, 腦溢血, 顔面神經麻痺, 心動過速, 頭痛, 衄血등에 多用되고 있었으며, 熱性 疾患에서는 胸中熱, 身熱妄言, 身熱, 發熱, 瘡疾, 熱病等에 多用하고 있었으며, 그 外 脊髓炎과 같은 腦와 脊髓의 疾患, 虛勞, 疲乏, 五勞七傷과 같은 虛勞性 疾患, 疔瘡과 같은 外科 疾患에도 使用되고 있었다.

經絡的으로 考察하여 보면 身柱穴이 屬해 있는 督脈經의 流注部位 或은 督脈經과 聯關

된 疾患等을 治療하는데 使用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IV. 結 論

身柱穴에 對하여 《黃帝內經》以來 歷代의 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身柱穴의 穴位는 第三胸椎棘突起下로 나타나 있었다.

2. 身柱穴의 取穴은 俯而取之로 나타나 있었다.

3. 身柱穴의 刺鍼深度는 直刺時에는 三~五分, 斜刺時에는 五分~一寸이 適當 하며, 留鍼時間은 五呼로 나타나 있었다.

4. 身柱穴에 對한 灸法은 三壯에서 百壯까지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禁灸에 對한 記載는 없었다.

5. 身柱穴은 疾患別로는 呼吸器 疾患, 神經精神科 疾患, 熱性疾患, 小兒科 疾患에 多用됨을 알 수 있었다.

6. 身柱穴의 穴性이 理氣降逆, 祛邪退熱, 清心寧志, 補肺清營, 止咳平喘, 清熱鎮驚, 寧神鎮痙으로보아 呼吸器 疾患, 神經精神科 疾患, 熱性疾患 等に 應用이 可能할 것으로 사료된다.

7. 身柱穴의 主治症은 氣管支炎, 肺炎, 肺結核, 喘息, 百日咳, 神經衰弱, 히스테리, 精神分裂症, 癲癇, 癲, 狂, 癇, 發熱, 瘡疾, 腰背項痛, 顔面神經痲痺, 腦溢血, 中風不語, 頭痛, 脊髓炎, 痙攣, 衄血, 癰瘡, 小兒驚風, 小兒搐搦, 疲乏, 疔瘡 等の 疾患에 使用됨을 알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 1) 金賢濟 外: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83.p.170.
- 2) 姜孝信: 東洋醫學概論, 서울, 高文社, 1973.p.75~78.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p.120.
- 4)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p.468.
- 5)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344.
- 6) 楊繼洲: 鍼灸大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p.274, 298.
- 7) 王國瑞: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中國醫學大系14卷),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794.
- 8) 高武: 針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p.290, 291.
- 9) 吳謙 外: 醫宗金鑑(三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p.722, 699.
- 10) 吳崑: 鍼方六集,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2.p.67, 159.
- 1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p.193.
- 12) 李樅: 編註醫學入門(鍼灸篇), 서울, 大星文化社, 1984.p.303.
- 13) 許浚: 東醫寶鑑(鍼灸篇), 서울, 大星文化社, 1981.p.434.
- 14)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1979.p.1413.
- 15) 程寶書: 鍼灸大辭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8.p.217.
- 16)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75.p.180.
- 17) 張縉: 鍼灸穴名解, 臺北, 啓業書局, p.7,8.
- 18) 上海中醫學院: 鍼灸學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351.
- 19) 陳瘦燕 外: 鍼灸腧穴圖譜,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105.
- 20) 崔容泰 外: 鍼灸經穴圖鑑, 서울, 高文社, 1986.p.65.
- 21) 李文瑞 外: 實用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p.126.
- 22) 楊甲三 外: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

- 社. 1987.p.384, 385.
- 23) 李世弘：中國鍼灸大辭典，臺北，太一彩色印刷有限公社，1982. p.960, 964.
- 24) 李經緯：鍼灸集成，北京，中國書店，1986.p57.
- 25)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 教室：鍼灸學(上)，서울，集文堂，1988. p.180, 181, 685, 698.
- 26) 覃保霖 外：中華鮮花葉透穴療法，融安，廣西民族出版社，1992. p.205.
- 27) 劉少林：中國民間刺血術，重慶，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1984. p.73
- 28) 余仲權外：經穴辨證運用學，成都，四川科學技術出版社，1989. p326, 327.
- 29) 鍼灸研究中心：臨床內外科針灸學，臺北，武陵出版社，民國73年. p.434.
- 30) 安榮基：經穴學叢書，서울，成輔社，1986.p.646, 647.
- 31) 成樂箕：現代鍼灸學，서울，杏林出版社，1987. p.448, 449.
- 32) 焦順發：中國針灸學求真，北京，山西科學教育出版社，1897.p.64.
- 33) 山東中醫學院：鍼灸穴位解剖圖譜，山東，山東人民出版社，1978. p.118.